

정의와 세계관

손봉호(대표주간)

지난해에 마이클 샌들 교수(Michael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1년 만에 100만권이나 팔렸다. 재미있는 소설도 아니고, 당장 생활에 필요한 내용도 아니라서 그 사실이 더 놀랍다. 책이 워낙 쉽게 잘 쓰였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한국인들이 정의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다.

그 책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보다는 윤리 전반을 다루고 있다. 윤리란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을 것이다. 저자의 윤리이론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윤리문제가 곧 정의문제란 것에는 동의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윤리는 직접,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해 왔었다. 거짓말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가령 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거짓말은 비도덕적이라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비도덕적인 거짓말이다. 그럼으로써 타인을 억울하게 했다면, 이는 정의에 어긋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도덕적 행위는 불의(injust)하다.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대부분은 약자다. 일반적으로 강자는 억울할 일을 겪지 않거나 혹 당한다 해도 치명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남는다.’는 속담에서처럼 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망하면 바로 그 때부터 굶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치 교통질서는 탱크나 덤프트럭이 아니라, 자전거나 소형차의 운행 및 보행자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과 같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는 필수적이다.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이

유는 다수 의견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권력의 독점을 막아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리고 부패는 필연적으로 부정의를 함축한다. 부패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뇌물수수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어떤 정치학자는 뇌물이 “가난한 자로부터 돈을 빼앗아다 부자에게 갖다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동시에 구체적으로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polis)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한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같이 의논해서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효시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당시 노예, 여자, 외국인, 상인들은 참여 할 수 없었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 즉 사회 약자들을 위한 권리는 결여돼 있었던 것이다.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치 교통질서는 탱크나 덤프트럭이 아니라,
자전거나 소형차의 운행 및 보행자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과 같다.**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구성원 전체의 기본 권리가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대로 말이다. 민주주의가 서양에서 발달될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적 세계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세에 봉건주의가 지배했던 것은 당시 교회가 성경보다는 전통의 권위를 더 존중하고 그리스의 세계관에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적 세계관이 회복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부패가 많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60번째로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는 정의가 충분히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정의가 바로 서고 약자들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의 한 중요한 임무임을 잊지 말자. **W**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문화포럼 대표이사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